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

2017년 11월 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6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11. 6.(월)	담당부서	철강화학과
담당과장	윤성혁 과장(044-203-5180)	담 당 자	이우진 사무관(044-203-4286)

제18차 한·일 철강분야 민관협의회 개최

- 철강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'17. 11. 6.(월) 서울에서 **일본 경제산업성**과 공동으로 **제18차 「한·일 철강분야 민관협의회*」**를 개최하여 **철강산업 동향 정보**를 공유하고, 국제적인 **공급과잉**과 **보호무역주의 심화**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.

* 한·일 철강분야 정보교환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'01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 (제17차 회의 : '16.12.1(목), 동경)

○ 이번 회의는 **산업통상자원부 윤성혁 철강화학과장**과 **일본 경제산업성 고조 사카모토**(Kozo SAKAMOTO) **금속기술실장**을 대표로, 양국 정부, 협회, 업계 **60여 명**이 참석했다.

< 제18차 한·일 철강분야 민관협의회 개요 >

○ **일시/장소 :** '17. 11. 6(월) 15:00~20:00 / 롯데호텔 서울

○ **참석자 :** **(우리측)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장**, 한국철강협회, 포스코, 현대제철, 동국제강, 동부제철, 세아제강 등
(일본측) 경제산업성 금속기술실장, 일본강철연맹, 일본 스테인리스협회, 신일본제철(NSSMC), JFE 스틸

□ 한·일 양측은 **최근 철강산업 동향**에 대해 소개하고, 특히 일부 철강 품목의 양국의 **교역 현황**과 **관련 통계**에 대해 논의했다.

○ 우리는(한국철강협회)은 향후 국내 철강 수요산업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, 최근 **일본산 철근 등 수입 증가**에 따른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.

○ 일본측(일본 스테인리스협회)은 최근 **스테인리스 시장 상황 및 양국간 교역 현황**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.

□ 한편, 우리는 철강 제품에 대한 **과도한 반덤핑·상계관세 판정**과 **미국의 철강 수입 안보영향 조사(232조)**에 따른 **추가적인 수입제한 조치 가능성** 등에 우려를 표하며, 철강 분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맞서 **한·일 양측이 함께 대응**할 것을 제안했다.

□ 또한, 양측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국제 **철강 공급과잉**에 대한 **공동의 대응**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, 현재 운영 중인 「**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글로벌포럼**(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)」 차원에서 양국 간 **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**하기로 했다.

* 주요20개국(G20)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('16.12월), 한국·일본·미국·중국·EU 등 33개국 참여

□ 한-일 양국은 앞으로도 국제 **공급과잉** 등 **공동으로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힘을 모아 대응**하고, 양국 간 통상마찰이 우려되면 **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.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이우진 사무관(☎ 044-203-42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